

社會主義의 理想

辛日鎔

一, 共有財産制度

社會主義의 理想은 財産制度의 改革에 그 主眼이 잇난 것이다. 私有財産制度는 幼稚한 社會에 在하여야는 種々の 利益이 不無하였을 것이다. 즉 自己가 生産한 財産을 自己가 所有하게 된 時期에는 어느 程度까지 必要하였을 것이다. 또한 社會主義者라도 近世의 資本主義가 生産을 膨脹케한 功蹟만은 一般이 是認하는배다.

그러나 現在와 가티 人文이 發達하고 社會가 進歩한 時期에 在하여야는 私有財産制度를 許하면 여러 가지 弊害가 發生하게 된다. 現在의 經濟組織은 大規模의 發達을 遂하여 마지아니할 現象이다. 이러한 時代에 私有財産을 許하는 것은 小數의 富豪를 產出하고 多數의 貧困者를 出케 하는 까닭에 이것이 社會問題의 出發點이 된다. 그럼으로 現在의 私有財産制度는 多數의 貧困階級을 產出할뿐 아니라 吾人의 社會生活의 諸方面에 害惡을 與하는 者多하다. 그러면 社會主義者의 公有財産制度는 엇더한가?

一部分의 人士는 私有財産을 公有財産으로 變한다는 理論은 突然히 天角에서나 持來한 것인가 생각하지만은 實狀은 現今 資本主義財産制度 안에서 胚胎하여 小數의 先覺者로 하여곰 그 功勳을 覺得케 한것이다. 말하자면 現在에도 만흔 公有財産의 形態를 볼 수 잇난 것이다.

例컨대 土地라는 것은 大部分이 私有財産으로 化하고 말었지만은 아즉껏 公同團體의 公有土地가 적지 아니하고 國家가 所有한 土地라든지 歐洲諸國과 如히 町市의 所有地라든지 그것이다.

公園이나 道路는 土地公有共用의 適切한 實例이다. 그뿐 아니라 社會公衆의 便宜를 與하기 爲한 水道, 電車, 鐵道, 電信, 電話 가튼 것도 大概國家 또는 市가 所有한 것이다. 그런데 一般이 危險視하는 社會主義라는것은 그 範圍를 一層 根本의으로 擴張하고자 하는 主張에 不過한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改革으로 因하여 伴來할 여러 가지 利益과 幸福을 目標로 하는 運動을 起코자 하는 것이다.

社會主義는 모든 生産事業과 그 機關을 公有로하는 것을 主張하기 爲하여 個人의 利潤을 目的한 商買行爲를 排斥한다. 그럼으로一切 有財産을 公有財産으로 變革시키고자 하며, 그것을 國家-過渡期國家-가 管理하기를 要望하는 것이 社會主義의 第一 義的 理想이다.

無政府主義者「산티카르스트」도 國家를 否認하는 點은 社會主義者와 相異하지만은 私有財産의 徹廢를 張하는 點에 在하여야는 意見이 一致할것이다. 元來 社會主義는 絶對 私有財産을 否認하는것이 아니라 生産의 增殖을 目的으로한 一定한 私有財産을 是認한다. 勿論 私有財産의 撤廢를 完全히 實行한다면 그것은 共產主義라 할지언정 社會主義라 稱할 수 업는 것이다. 世人은 社會主義 即 共產主義로 아는 傾向이 만흔 듯한데 그것은 誤謬라 할 수 있다. 勿論 社會主義者가 共產主義를 理想으로하는 것은 事實이지만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사이에는 一定한 區別이 업지아니하다.

例컨대 社會主義는 生産物分配를 主張하는 一派가 잇스나 共產主義者는 一切의 生産物을 共有하자는 것이 한 相異點이라 하겠다. 그러나 社會主義가 온대는 여러 가지 分派가 잇기 ㅅㅅ문에 그 分派에 ㅅㅅ라서 多少의 差異가 有하나 적어도 正派(맑스主義)에 屬한 社會主義者들이 過渡期에 私有財産을 生産의 增殖을 爲하여서 是認하는 것은 社會主義 國家를 共產社會로 變革코자하는 方便인 것은 事實이다. 맑스도 말하기를 過渡期의 國家는 全力을 經濟의 生産에다 傾注하여 物質을 豊富케하여서「모든 小 ㅅㅅ르쵸아의 權利思想이 消滅되고 財貨의 所有慾이 緩和된 후에 비로소」共產自由社會가 實現할 것이라고 言하였다.

社會主義者 가운데에는 私有財産撤廢에 對하여도 여러 가지 議論과 主張이있다. 즉 住宅 問題라든지 日用家具 及 消費品 問題라든지 衣類, 嗜好 問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잇지만은 이러한 問題는 或은 特殊問題로 或은 枝葉問題로 取扱하는 故로 여기에서는 仔細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할 問題는 私有財産撤廢에 對한 手段 問題이다. 或者는 撤廢를 主張하되 革命的手段을 否認하고 公債發行과 如□財政政策 或은 其他 社會政策에 依하여 漸進的으로 全私有財産을 國家의 手中으로 集中하겠다는것을 主張하는 者니 이곳 社會 民主主義者 日和見 社會主義者 法的 社會主義者들이다.

그리고 社會主義者의 革命的 分子는 革命의 時期에 在하여 無條件으로 一切의 私有財産을 國家의 手中에 集中하여가지고 그 理想의 第一步를 實現코

자 하는者니 各 國社會黨의 左黨, 第三國 際共產黨, 勞働黨의 急進的 分子 「싼티카리스트」 들이다.

二, 分配

레닌의 政府가 公布한 憲法 中에는 「勞働하지 아니하는 者는 먹지말라」 하는 一句의 表標가 있는데 이것은 聖經에 있는 말을 引用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社會主義의 理想은 各 個人의게 如何한 形式으로든지 勞働을 要求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程度까지는 勞働能力을 所有한 者는 반드시 精神勞働 或은 筋肉勞働에 從事하면 生活上保障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社會全體에서 生産하는 生産物을 社會的勞働을 提供한 勞働者는 一定한 分配量을 獲得할 수 있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決코 勞働에 對한 報酬의 意味는 아니다.

何故오하면 社會主義의 社會에서는 直接勞働에 從事하지 아니하여도 相當한 分配는 受할수도 있는 까닭이다. 例컨대 幼年者, 老年者, 不具者, 病者, 育兒期에 在한 婦人들은 何等 生産事業에 從事하지 아니 하드래도 分配를 受할 權利를 保有한 것이다.

勿論 彼等도 社會的 勞働과 全然 沒交渉은 아니라고 말할수도 있다. 幼年者는將來 重要的 勞働에 從事할것ियो. 老年者는 過去에 勞働을 提供한 까닭이라解釋하기 足한것이다.

그러나 不具者는 勞働이라는데 絶緣된 個人의 生覺할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人間社會에서 이런 不幸者만을 勞働不能이란 理由로 生活上 保障을 與하지 아니할수 업다는 것이 도로혀 當然한 社會의 任務라하겠다.

다시 말하면 勞働能力을 有한 者는 누구든지 勞働할 義務가 있는것이나 勞働不能狀態에 있는 兄弟의게 貧困을 强要한다는것은 人道上 問題로 終結될 것이라한다. 그런故로 社會主義者의 立地에서는 勞働者의 分配를 執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當然한 論理的 歸結이다. 차라리 人間으로서의 權利라는데 即 生存權이라는 것에 根本的 問題는 歸着된다 함이 當然하다.

엇것든지 사람은 一方으로 生存의 權利가 있는 同時에 社會에다 能力있는 바 勞働을 提供할 義務가 있다함이다. 現社會에서는 分配의 表準에 二種이 有하니 即 一은 勞働能率을 標準으로하는 것인데 가장 現在 널리 採用되는 方法이다. 勿論 能率에 精確한 計算이 可能하다면 어느 程度까지 公平한 方法이라할수있다. 그러나 現社會와 如히 그것을 無視하는 制度는 업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가장 顯著한 例를 들면 大貴族 大資産家の 子孫은 그의 子孫이란 單純한

緣故로써 能力如何는 不問하고 相當한 地位, 或은 富를 所有하게 되는 것이다.

資本家와 勞働者 間의 不平도 分配가 能力과 并行하지 아니하는데 그 源因이었다. 그러나 社會主義의 國家에 在하여야는 이와 가튼 壓迫搾取의 事實은 自然히 消滅되는 同時에 雇主대신에 勞働者의 共同機關인 國家의 干涉이 있슬뿐이다.

엇것튼 現社會에 在하여야는 勞働能率의 計算이 不公平 不完全한것이다. 筋肉勞働은 比較的 計算이 容易하다 할수잇스나, 精神勞働에 至하여야는 標準이 업는것이다. 例컨대 甲의 辯護士와 乙辯護士와의 間에 優劣은 무엇을 表準하여 定할것인가? 教育家, 政治家 亦是 그러할것이다.

資本主義制度下에서는 雇者가 不平을 부르지 않으면 理由如何, 生活上 保障有無도 不問하고 解雇하지만은 社會主義社會에 在하여야는 決코 그런일이업슬것이다. 權力과 強迫은 업스나 唯一한 方策은 共產主義의 標語와 如히 『能力에 依하여 必要에 應하여各々』이라는 것이 될것이다.

오늘날 家庭生活은 共產社會의 縮圖로 볼수있다. 勿論 家庭에 在하여야는 一家의 收入을 分配한다는것보다 家族全員の 必要에 應하여 消費하는것이 아닌가? 이와 가튼 龍大한 家族生活은 結局 共產主義의 最高한 理想일것이다. 그러나 家庭生活의 重要な 要素가 親愛와 道德力인것과 갓치 共產社會를 結合하는데도 이것이 重要な 任務를 가지고 잇슬것은 事實이다.

이러한 理想現實의 前提로 社會主義者는 平均 分配法을 實行하는것이 可할가한다. 그런데 社會主義者 가온대에도 分配에 對하여 어러거지 意見을 가것지만은 何如間 社會組織만 變革하면 平均分配도 어느 程度까지 可能하게 될것이다.

汽車나 其他 運輸機關을 頻頻히 使用하는 者는 商人, 工業家들인데 商品의 取引 이업써지는 社會主義社會에 在하여야는 旅行者, 荷物 등이 顯著히 減少될 것도 必然이 될지며, 遊民이 업 同時에 學校, 病院 及 博物館, 美術館, 實驗室, 音樂堂, 劇場과 如한 것을 無料使用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도 當然한 것이라 主張한다.

그리고 一般 社會主義者의 主張과 갓치 平均分配를 實施한다면 自然히 職業에 惰怠하여져서 그 社會는 不久에 破綻되리라고 生覺하는것이 世間反對者의 標語이지만은 社會主義者는 이것에 對하여 두 가지 理由로써 能히 그 弊端을 防禦할수잇단것을 力說한다.

第一의 理由 現社會에 在하여야는 多數한사람이 不必要勞働에 從事하매 遊民이 만코, 惰怠者가 만키자문에 卽 時間을 短縮함으로말미암어 能히 그런

弊端을 할수있다.

第二, 現社會에 在하야는 怠惰者를 尊敬 視福하고 勞働者- 勤勉者-가 賤待, 咀呪를 受하게되는故로 勞働을 嫌惡하나 此에 反하야 勞働은 必要한 義務로 누구나 다 하게된다면 그런憂慮-惰怠하게 된다는-는 一種의 杞憂에 不過할것이라한다.

何如間 社會主義社會에서 各人의 勞働에 對한 態度는 現今狀態에서 一變하게될것은 無疑의 事實일것이다. 資本家와 勞働者 間의 感情問題 消滅만 하여도 重大한 關係가 有할것이다. 勿論 現在 勞働時間과 賃銀 契約이 모든 勞働者의 自由意思를 束縛하고 咀呪하는 鍊綱, 桎梏인것은 否定치못할 事實이 안인가.

歐洲諸國으로 말하드래도 四五十年 前에는 普通 十三四 時間 勞働이엇든 것이 十時 間으로 八 時間으로 短縮되얏스나 生産上에는 重大한 影響이업슬 뿐아니라. 저英國의 싸-호름이라는 實業家は 六 時間 勞働의 實行의 可能을 宣布하엿고, 크로포트킨은 五 時間 勞働의 可能을 主唱하고 럿셀은 四 時間을 主唱하엿다.

싸로노쓰키氏가 自己의 著書「近世社會主義」에 引用한 것에 依하면 獨逸의 某 教授는 말하되 『만일 充分히 生産事業에다 科學的 方法을 應用 한다면 現在 獨逸國內에 在한 農夫를 六割로 減하고 그 生産物은 그 二倍를 收獲 하게되리라』 하엿다.

이러한 意見에 從하드래도 平均 分配가 一般이 憂慮하는것과 가티 惰怠의 成果를 產出하리라고는 想像하기 不能하다.

三, 職業의 撰擇

職業 問題도 亦是 一般的으로 誤解의 焦點이되여 잇난 것이다.

말하자면 職業 가온대는 困難한 것도 잇고 容易한 것이 잇는 것이 事實인 同時에 清潔한 것도 잇고 陋醜한 것도 있다. 또한 衛生的인 것도 잇고 非衛生的인 것도 잇난 것이다. 職業 自體에 그와 가튼 여러 가지 區別이 잇슬뿐 아니라 職業에 從事하는 場所에도 重要한 關係가 있다. 都會地에서 工業에 從事하는 者와 農村에서 農業에 從事하는 者와의 間에도 顯著한 差異가 잇고, 더욱히 都會 或은 窮僻한 村落이나 山谷에서 作業하는 礦業勞働 가튼 것은 가장 不便한 地位에 잇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更히 一步를 進하야서는 個人의 嗜好 或은 趣味에도 深대한 關係가잇슬것이다. 엇것든 社會主義者의 主張과 가티 엇든 사람이든지 自由로 職業을 撰擇할 수가 잇다면 엇든 사람이 困難하고 不潔하고 非衛生的이요. 不便利한 것을 果然 즐겨 撰擇할넌지 이것이 큰 問題이다.

勿論 文明의 進歩는 確實히 어느 程度까지 各 事業間에 介在한 顯著한 不公平을 除去할 수가 있을 것이다. 例컨대 糞尿의 運搬, 其他 汚穢物處置와 如한 不潔한 職業은 今日의 文明國의 一部에서도 볼 수 업는것이다. 저 海牙는 그 好例일 것이다.

치운날[추운 날] 人力車 끌 사람 은누구나?하는 問題도 잇슬터이지만은 人力車는 富의 增進의 結果 自働車로 代用할것ियो. 人力車와 가치 사람이 사람을 끄는 非人道的 乘物은 自然히 淘汰되고 말것도 事實일 것이다. 電車 運轉이라든지 荷物運搬이라든지 其他 勞働에 對하야는 特殊한 規定을 定할 수도 있다. 즉 時間을 短縮하는것과 가튼 方法이다. 其他 非衛生的 業務에 對하야도 代償할 價値를 有한 設備를 加하는것도 그러케 難事가 아닐뿐아니라 오늘날 여러 가지 職業上 差別과 階級的 存立이 職業에 對한 厭避 愛着의 動機가 되는 것도 看過하지못할 重要한 事實일가 한다.

그리고 科學的 進歩와 科學의 一般的 應用은 吾人으로 하여금 多大한 便益을 得케할것이다. 또한 都市生活과 田園生活과의 差異가 現在와 如히 顯著한것도 所謂 文明人의 不注意에서 出한 者이다. 個人的 利得을 爲하야 自己 生活만의 安全을 爲하야 時間의 大部分을 浪費하는 까닭에 奚暇에 그러한 共同生活上 必要條件에 顧慮를 加할 餘裕가 업섯다. 또한 爲政者의 閑漫한 責任이라고도 할 수 잇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社會에 在하야는 農村의 都市化 都市의 田園化의 努力에 依하야 都市와 農村과의 差別도 어느 程度까지는 自然히 煙滅되고 말것이다. 그러나 窮僻한 山地에서 作業하는 礦山勞働 가튼것만은 問題로 아니할수업다.

게다가 兼하야 極暑 或은 極寒地帶에서 從事하게 된다면 一定한 사람이 이런 種類의 勞 働을 當然히 撰擇하리라고 到底히 樂觀的으로 企待하기 어려운 事實이다. 이러한 境遇에는 自由撰擇에 다만 放任하기 不能한 故로 不得已 一定한 方法을 講究치 아니하면 안된다.

有名한 社會主義 小說家 셰리미-氏는 이러한 必要에 應하기 爲하야 社會 內에 所謂 豫備軍이라는 것을 두엇다. 그에 依하면 滿二十一年이된 青年이 大學教育을 맞치고 義務勞働에 從事하게되는 때에 彼等으로 하야곰 三年間은 共同團體의 指圖에 依하야 勤務를 終了하고, 그 다음에 自由로 職業을 撰擇하게하고 또한 다른 社會的機關에 或 臨時로 勞働力이 不足한 境遇에도 充用하는것이 可하다는 考案을 提示하엿다. 勿論 이것이 滿足한 것은 아니지만은 何如튼 境遇에 依하야 解決할 수는 잇슬 것이다. 이것은 義務實行보다도 몇배나 實行하기가 容易할 것이다. 다만 最後에 問題가 되는것은 精神勞働과 肉體勞働과의 問題이다. 例컨대

全然히 精神勞働者의게 筋肉勞働을 免除하는 與否의 問題와 如한것이다.

이 問題에 對하야는 社會主義者의 意見도 種々이 有하나 그 二者를 區別한다면 精神勞働者와 肉體勞働者와의 資格決定 問題가 發生한다. 그리하야 무슨 試驗制度 가튼 것이 發生한다. 즉 말하자면 各其 適否를 決定하는 表準이 잇게된다합니다. 그런데 勿論 그런 方法을 行한다 假定하여도 至今行하는 무슨 試驗에 落第失敗한것과 가튼 失望落膽은 업슬것이다. 그는 現今은 出世問題는 一生涯의 死活問題, 榮枯問題가 되는 일이 許多하지만은 그 世에야 그런것은 問題도 안되겠지만은 境遇에 依하야 個人의 意思가 迫害되는일이 업지 아니하다하면 勿論 顧慮할 問題이다.

그러면 精神勞働者가 되는 同時에 肉體勞働者가 되어야 한다는 無政府主義者의 主張은 엇더할가. 즉 말하자면 音樂에 趣味를 가진 사람이 敎育을 받는 동안에는 늘 音樂을 研究하엿스나 一旦 義務勞働期限이 된다면 그 사람은 音樂만을 專業으로 할것이 아니라 筋肉勞働 卽 直接 生産勞働에 從事하고 그 餘暇를 自己의 專門인 音樂을 娛樂的으로 研究하는것이 엇덜가하는 問題이다. 或은 이러한 境遇에 在하야는 自己의 專門인 音樂研究時間에 몇時間을 義務時間에서 控除하여줄가? 이러한 剗切한 問題는 吾人의 愼重한 思索과 研究에 依하야 完全히 解決될 問題이지만은 何如間 一般이 疑懼하는바와 가티 職業의 撰擇 問題가 實現不可能까지의 程度의 影響은 주지 못하리라고 斷言한다. 이 外에도 職業에 對한 年限 問題라든지 年齡과 職業과의 關係가 업슴은 아니나 이에서는 이만 畧하고말겟다. (未完)